

DMZ 평화 순례 보고서

2417 014윤

6월 7일 전주T, 선재T와 함께 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강원도 철원에 갔다. 바로 DMZ 평화 순례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동행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며 거의 4시간이 40분 같았다. 처음 오자마자 본 것은 철원군에 있는 '노동당사'이다. 노동당사 앞에 우리가 분단된 지 몇 시간이나 걸렸는지 실시간으로 나타나 있었다. 약 '64백만'의 시간이나 지났다고 하셨다.

조금 충격적이었다. 64백만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과연 우리 통일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된 기회였다. 이어서 노동당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과거

북한 땅이었을 때 철원군 조선 노동당에서 시공한 건물로 8.15 광복

후부터 6.25 전쟁이 일어나기 까지 이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고문과 학살을

당했다고 한다. 길 보습만 보고 너무 멋있다고 감탄했었는데 이런 슬픈 역사가

담긴 문화재 일구는 몰랐으며 6.25 전쟁 때 무너지지 않고 아직까지 버틴 '노동당사'도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그 다음 차를 타고 이동하여 'DMZ 평화' 문화관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국경선 평화학교'의 '정지석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국경선 평화 학교에선

해외 외국인 학생도 있으며 매일 같이 평화통일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하셨다. 또 정지석 박사님과 많은 시민들이 다같이 참여하여 평화통일 손잡기

캠페인도 하셨으며, 내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점도 해결해

주셨다. 이를 통해 난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더 알아가며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다. 그 다음 세번째로 간 곳은 '철원 평화

전망대 모노레일 카'이다. 이곳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

'철원 평화 전망대'가 나온다. 이곳에서는 철원의 어디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다. 이 전망대에서 서서 보 산들은 북한 땅이라고

하셨으며 과거 '중계'의 태평국 도성지 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다. 과거 역사에

함께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신기하였다. 또 500원을 넣어 망원경으로 이 철원의

모든 곳을 바라보았다. 비무장 지대도 보이고, 그곳을 지키는 군인들, 하늘을 자위

롭게 나는 두루미도 아름다운 자연도 한눈에 다 볼 수 있었다. 이때 놀러온 건지

견학 온건지 옆에 군인들도 있었나 보다. 내가 보는 망원경 앞에서 장영을 치셨다.

서로 놀라 도망갔다. 이렇게 처음 본 나이차이도, 세대 차이도 많이나는 군인들도 아뭏

스럼 없이 장난 치는데 우리와 한 민족인 북한 친구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슬펐으며, 한국 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 북한 남한이 하나가 되어 백두산까지 가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